익산시 올들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

7월 인구 29만5846명으로 무려 4341명 감소
인구 유출 가속화 될 경우 28만까지 붕괴 우려
시, 인구늘리기 정책 발굴 · 추진 등 각종 시책 추진

익산지역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까지 각종 인구 유입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출 인구가 늘면서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지역의 인구는 지난해 12월말 30만187명을 기준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인구 30만명 선을 겨우 유지하는 듯했으나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익산시 1월말 인구는 29만9146명, 2월 29만8117명, 3월 29만7801명, 4월 29만7313명, 5월 29만6763명, 6월 29만6372명, 7월 29만5846명으로 무려 4341명이 감소했다.

시는 이같은 인구 감소세를 멈추게 하기 위해 각 부서별 인구늘리기 정책 발굴·추진을 서두르는가 하면,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와 군부대, 공공기관을 통한 주소전입운동을 펼치면서 인구 유입책에 안간힘을 쏟지만 유입 인구보다 인구 유출이 탄력을 받는 상황이어서 담당부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될 경우 29만 붕괴, 28만 붕괴까지 우려돼 향후 익산 위상이 크게 흔드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같은 추세라면 국회의원 수 감소는 물론 공무원 정원 감축 등의 위기 등 익산시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면서 "호남 3대 도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치권과 익산시, 익산기관 단체 및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의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전국 방방곡곡 이색 홍보 눈길

'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홍보

이번 홍보활동은 정안휴게소를 시작으로 광화문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명동 등지에서 '오빠는 풍각쟁이야' 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음악에 맞춰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이며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열정적으로 홍보했다.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018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을 20여일 앞두고 축제를 색다르게 홍보하기 위해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시간여행축제 플래시몹 서포터즈' 30여명이 지난 25일 서울의 주요 관광지에서 홍보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안휴게소를 시작으로 광화문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 명동 등지에서 '오빠는 풍각쟁이야' 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음악에 맞춰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이며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열정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플래시몹 서포터즈의 공연을 본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서포터즈의 공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함께 춤을 추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9월부터는 군산의 주요 관광지에서 집중적으로 시간여행축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홍보의 주축에 있는 플래시몹 서포터즈가 시간여행축제의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플래시몹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홍보활동에 발맞춰 군산시간여행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간여행축제는 1930년대 군산의 일상 모습을 다양한 콘셉트로 구성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을 올릴 예정이며, 개막식에서는 악극, 변사 등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군산=김정훈기자

도심 속 여름 피서지 군산야외수영장 폐장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었던 올해 여름에 도심 속 시원한 피서지가 되어준 군산 야외수영장이 지난 26일, 51일간의 운영을 마치고 폐장했다.

군산야외수영장은 지난 7월 5일 개장해 주말 평균 2~3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으며,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 가까이 되는 관광객이 더위를 피해 야외수영장을 찾았다.

부지면적만 11,617㎡에 달할 정도로 넓은 공간에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과 워터슬라이드 2개소, 바닥분수 등의 놀이시설로 이용객들에게 시원한 놀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에는 6m 이상의 대형야자수 5그루를 추가 배치해 야외수영장의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2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안전 및 쾌적한 물놀이를 위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야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군산야외수영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인풀 내에 어린이 축구장 및 농구장, 광장에는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인공암장, 미끄럼틀, 볼풀장, 트램펄린 등을 설치해 9월 중순부터 가을철 어린이놀이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금마 이주단지 잔여택지 일반분양 공고

금회 잔여 단독주택 6필지에 대해 일반분양

금마면 서고도리 일원에 단독주택 총 25필지 중 19필지는 이미 특별분양 등으로 완료하고 금회 잔여택지 6필지에 대해 일반분양한다.

익산시가 금마 고도지구 내 잔여택지를 일반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금마 고도지구 이주단지는 금마면 서고도리 일원에 단독주택 총 25필지 중 19필지는 이미 특별분양 등으로 완료하고 금회 잔여택지 6필지에 대해 일반분양한다.

금마 고도지구 이주단지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금마면 서고도리 일원에 조성규모 2만1,560㎡, 택지 25필지, 공공용지 2필지가 조성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원주민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을 실시했다.

지난 5월 분양에서 금마 고도지구 내 주민을 1순위로 하고, 익산시민을 2순위로 분양하였으나 일부 미분양이 발생함에 따라 금회 잔여택지 분양에서는 누구나 입찰 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입찰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27일 18시부터 9월 3일 14시까지 약 1주일간 등록할 수 있으며 개찰은 9월 4일에 진행된다.

이번 잔여택지 입찰참가 자격은 지역제한은 없으며, 1인 1필지에 한하여 최고가 낙찰방법으로 선정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 용지는 총 6필지로 모두 단독주택이며, 면적은 319.4㎡(96평), 343.5㎡(103평), 352.1㎡(106평), 393.2㎡(118평), 448.7㎡(135평), 460.1㎡(139평)로 분양예정가격은 ㎡당 평균 34만4,400원(3.3㎡당 113만6,520원) 정도이다.

/익산=우병희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만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한지 2일 만에 군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26일 호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침수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6일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 대치로 변경됨에 따라 관과소 및 읍·면·동 공무원의 1/2 비상근무를 명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지시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소룡동 일원을 시작으로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주요 현장을 점검하며 영화동 및 중앙로 등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시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현장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철저한 예방 및 점검을 당부해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모든 재난상황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대응을 펼쳐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방문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열)에서는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7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그간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들은 현재 익산시 현안과제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율 100% 상향,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 추진, 기업유치 등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들의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위하여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금강철새여행축제, 시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

군산시는 '2018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이 지역민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18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은 서천군과의 상생·화합을 위해 올해 네 번째로 공동개최하는 축제로, 오는 11월 18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아이디어 공모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이며, 공모분야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군산시의 생태적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금강철새여행 축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철새와 생태를 테마로 한 군산시-서천군 상생협력을 상징할 수 있는 공동연계프로그램 등이다.

공모전 접수는 군산시 금강철새조망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모전에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철새축제 기간 동안 직접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아이디어 제안서식은 금강철새조망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기자